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개선에 대한 시계열적 고찰

문재영*, 장지경^o

*동서대학교 경영학전공,

^o동서대학교 회계세무학전공

e-mail: jaymoon@dongseo.ac.kr*, jkjang@dongseo.ac.kr^o

A Time Series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Jae-Young Moon*, Ji-Kyung Jang^o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seo University,

^oDept. of Accounting and Taxation, Dongseo University

●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다년간 계속되어 온 공기업의 개혁 성과에 대해 경영효율성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공기업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개혁 움직임은 부채 수준의 급증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방만 경영으로 대표되는 비효율적인 경영방향이 지속된다면 미래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효율적 경영은 자료포락분석에 의한 DEA로 측정가능하며, 본 연구에서는 DEA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이 개혁과정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매년 발표되는 경영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시계열적 추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공공기관 개혁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성공적인 개선을 이루기 위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관이 더욱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경영효율성(Management Efficiency), 공기업(Public Institutions), 시계열(Time Series)

I. Introduction

최근 수년간 공공기관과 관련한 주요 이슈는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영개혁이었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의 자구적 노력 역시 계속되어왔다. 공공기관은 본래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효율성의 추구가 설립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더라도, 효율적 경영을 통한 수익성은 확보되어야만 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방만 경영, 직원의 과다 급여 등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렇듯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경영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이 개선되어 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관한 향후 정부정책의 수립방향에 중요한 제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Preliminaries

공공기관은 설립목적이나 경영활동의 내용 등과 비교할 때 민간기업과는 상이한 면이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및 제공함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업이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 손실보상제 등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이 수익성 악화에도 방만 경영 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비효율적 경영을 계속할 수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수익성 악화와 비효율성은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높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 역시 자구적 노력을 다하여 왔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Husain et al.(2000)은 DEA 방법이 복수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고려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DEA를 통해 기관별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기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효율성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먼저 Lee(2010)는 정부투자자 이루어진 공기업 12개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고,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진 공기업이 일부 지분을 가진 공기업보다 효율성이 더욱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Jang(2021)은 비효율적 경영이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규모로 측정된 비효율성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유의적 관련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III.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료포락방식에 의해 경영효율성(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을 측정한다. DEA는 일련의 선형계획법을 각 의사결정단위의 투입 및 산출요소에 적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프런티어(Frontier)를 구성하고, 다른 DMU와 프런티어와의 편차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Kim, 2015). DEA의 측정 시 사용되는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는 아래 Table과 같으며, 구체적으로 투입요소로는 임직원 수, 총비용을 고려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을 포함하였다. 이때, 임직원 수는 기관장, 이사 등의 임원 수와 직원 수의 합계이며, 총비용은 매출원가, 판매비, 영업외비용의 합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으로 측정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을 사용하였다. DEA의 연도별 변화 추이는 아래 Figure1과 같다.

Table 1. Input and Output factors for DEA

Factors	Variables
Input Factors	Executives and Staff
	Total cost
Output Factors	Sales
	Net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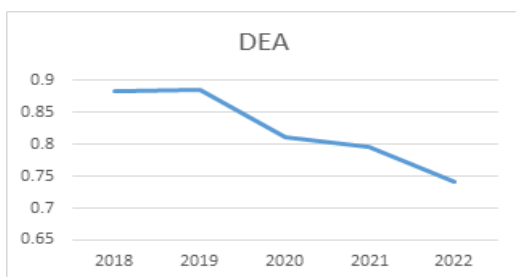


Fig. 1. DEA by year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공기업의 과거 수년간 경영효율성 측정치가 증대되었는지 여부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정부 및 공기업이 그동안 노력하였던 개혁 움직임에 상반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향후 정책수립 방향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REFERENCES

- [1] Husain, N., Abdullah, M., and Kuman, S. "Evaluating Public Sector Efficiency with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A Case Study in Road Transport Department, Selangor, Malaysia." *Total Quality Management*, Vol. 11, No. 4, pp.830-836, 2000.
- [2] Lee, Seungyong. "Measurement of the Efficiency of Public Enterprises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Korean Journal of Public Management*, Vol. 24, No. 4, pp.51-71, 2010.
- [3] Jang, Jikyung. "The Effect of Inefficient Management on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6, No. 4, pp.223-229, 2021.